

광역쓰레기매립장 '위원 추천' 갈등

전주시의회 "투명한 절차 밟아야" 반발... 주민지원협의체 "마을총회서 주민대표 선출해 문제 없다"

임기 종료로 앞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놓고 전주시의회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이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좀 더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전주시의 입장은 갈수록 난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전주, 김제, 완주 시·군 의원 3명과 전주시 해당 주민대표 6명, 김제시 해당 주민대표 2명, 완주군 해당 주민대표 2명, 정문가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현 매립장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마음에 들면 주민대표 성격을 띠는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쉽게 될 수가 있고, 그간 비협조적이었던 위원을 선출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약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기에 법에서 시의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권한 행사를 통해 제대로 들여다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10월경 다가오는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종료 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전주시는 그동안 관례처럼 진행돼 오던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임기 종료 위원 선출 문제를 큰 소리 없이 해결하기 위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머리를 맞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전주시는 26일 김승수 시장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 송상준 부의장,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각 기관장, 아동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가졌다.

대 왔다.

이에 따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각 마을별로 총회를 통해 추천을 받아 다시 재논의 끝에 전주시 관할 11개 마을에서 6명을 선출해 지난주 전주시의회에 제8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지난주 접수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주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전주시조례를 제시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내놓은 만큼 전주시의회는 이를 인정하고 전주시에 정식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한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달랑 전과조회 기록만 보고 인정이나 하는 거수기가 아니기에 좀 더 자세하고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추천 자료가 동반돼야 한다"며 "전주시 관할 11개 마을이 해당되는 만큼 1개 마을에서 2명씩 선출해 22명에서 다시 6명으로 압축하는 추천 방식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단수(6명)로 추천된 것은 모두 버리고 새롭게 22명을 선출해 전주시회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다시 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매립장 안병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은 "전주시의회가 선출권과 추천권에 대해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 매립장은 전주시로부터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해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그동안 총 21개 마을 중 사정이 있는 1개 마을을 제외한 20개 마을에서 총회를 열고 주민대표 선출에 대한 머리를 맞대왔다"며 "절차상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이 같이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용 기자

'이달의 전주 시내버스 친절기사' 표창

전주시는 26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중 친절기사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달의 시내버스 친절기사는 이두봉(성진여객), 정만식, 조성우(전일여객), 윤영만, 이인희(제일여객), 박병두, 정성열, 한갑원(호남고속), 김용화(시민여객) 등 9명으로 단순한 시민의 발 역할을 넘어 승객과 공감하는 노력 등을 통해 친절기사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시민여객 김용화 친절기사의

경우, 한옥마을을 방문하기 위한 외국인에게 한옥마을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줌으로써 친근하고 다시 오고 싶은 전주라는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을 받은 기사들은 시민들의 추천과 제보, 검증 등을 통해 선정된 5.6월의 시내버스 친절기사들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 중앙동 마을신문 '중앙동소식' 창간호 발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주민센터는 지난 25일 중앙동 지역이야기를 담은 마을신문 '중앙동소식' 창간호를 발간했다.

총 4면으로 이뤄진 창간호에는 중앙동 일반현황과 상반기 동안 이뤄진 이웃사랑 나눔 행사와 동정소식, 후원참여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동소식'은 앞으로 마을의 역사와 유래가 담긴 기획시리즈와 지역의 미담 사례 및 마을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행정의 눈이 아닌 지역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앙동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주민 박민숙씨는 "중앙동의 다양하고 따뜻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유익하고 좋았다"며 "창간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마을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동소식'은 관내 인쇄업체 피앤비에서 제작 및 인쇄를 후원하고 있으며, 창간호 4,000부를 발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 경찰교육센터, '경찰과 인권' 과목 신규 편성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전북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 친화적 경찰상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오는 27일부터 경찰교육센터의 모든 교육과정에 '경찰과 인권' 과목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운 정부가 '인권경찰'을 주요 국정과제 및 시책과 경찰의 인권문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경찰교육센터에서 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과목의 교과과정은 인권침해 사례교육과 인권교육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업무 수행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기본원칙과 적법절차를 사전 준수하도록 인권교육 내실화를 통해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중환자보호실 절도 10대 구속 사우나서 차량 열쇠 훔쳐 도주

병원 중환자보호실에 침입해 지갑과 통장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6일 보호자 대기실에 침입해 지갑과 통장을 절취한 혐의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익산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보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B(56,여)씨가 면회를 간 사이를 노려 B씨의 가방에 있던 지갑과 통장을 훔쳐 은행 CD기에서 9회에 걸쳐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TX를 이용해 서울과 익산 일대 병원 및 장례식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했다.

/이상민 기자

익산의 한 사우나에서 한 남성이 라커룸에 있던 차량열쇠를 훔쳐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26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께 익산시 한 사우나에서 한 남성이 A(51,남)씨의 금목걸이와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다.

뒤늦게 A씨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우나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젊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도난차량이 아직 익산시내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상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ICT 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 기지로 키운다

전주시, 창업인력 양성·컨설팅·사업화지원·창업기업 발굴 등 확대 추진

전주시가 문제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청사진에 발맞춰 핵심기술로 손꼽히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업들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기지로 키워 나가기로 했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ICT분야 인재를 키워내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창업인력 양성과 컨설팅 및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발굴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자를 발굴하고 ICT분야 창업 맞춤형 전문교육은 물론 제품제작과 창업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창작을 위한 캠프 운영 등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문제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로 ICT분야를 내세우고 있어, 더 많은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ICT 공공부문 및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ICT분야 창업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20명을 발굴, 지원했다. 또 창업맞춤형 전문교육(44명), 창작확산 캠프(88명), 우수 창업아이디어 19건에 대한 시장검증지원을 추

진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ICT기반 5대 전략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255억원 규모로 농생명SW융합플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물인터넷(IoT) 기반 확산을 위한 K-ICT 디바이스랩 구축,운영하고, 특히 3D프린팅 분야 시제품제작 전문인력을 채용해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를 본격 가동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